

획득실장주재 방산간담회 열려

화생방, 일반장비분야 18개 방산업체 대표 참석



및 일반관리비에 대한 지급방식을 개선하여, 직접비 발생 연계방식에서 기간배분 방식으로 개정해 업체의 금융부담경감과 함께 지출 증빙서류 제출 생략으로 인력, 시간 등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어 경영 개선에 기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군용물자부품 국산화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국방기술개발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0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활용해 지원해 주기로 하였다.

국방 부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지난 9월 6일 국방회관에서 최동진 획득실장 주재로 화생방/일반장비분야 18개 방산업체 대표와 국방부 관계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산 현장의 소리 청취 및 방산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방산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먼저 정책설명에서 국방부는 우선 방산특조법령 개정에서 방산물자 지정/취소 정기검토 주기를 현실화하여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고 개별품목은 사유 발생시 수시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장기계약의 착수금 중 간접노무비·간접경비

이여 진행된 획득실장과 방산업체 대표간의 자유토론에서는 방산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활발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상호 신뢰와 이해의 폭을 넓혔으며,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해 방산업체와 정부가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국방부주관 방산간담회 활성화 계획(연2회-연6회)에 따라 작년 12월 화력/탄약 분야, 금년 2월 함정/기동분야, 4월 항공·유도/통신·전자분야에 이어 네번째로 개최된 것으로, 향후 이를 통해 방산업체와 정부간 협력체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산학회, 조찬강연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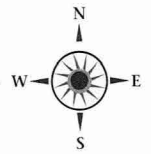
「21세기 동북아 시대와 방위산업 전략의 새 패러다임」 주제로

한국 방위산업학회에서 주관하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후원하는 제15회 방위산업 정책포럼이 지난 9월 24일 조선포럼에서 개최되었다.

조찬을 겸해 열린 이번 포럼에는 백영훈 한국산업

개발연구원장이 「21세기 동북아 시대와 방위산업 전략의 새 패러다임」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백영훈 원장은 초대 방위산업학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산업기술분야에 탁월한 식견을 가진 전문가로



“방위산업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지난날 정부 주도의 낮은 가치관과 육성의 틀 속에서 새로운 변화

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데 있다”고 진단하고, “21세기 지구촌의 기술패권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이제는 방산업체 스스로 국방연구개발 및 생산의 중심에 서야 하며, 정부는 업체들이 스스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자율과 책임하에 경영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마련해 주면서 방산업체의 현재 능력이 미흡할지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채우석 조달본부 차장과 이원승 이오시스템 사장이 나서 국방예산과 정부 연구개발 자금 중 방산 분야 확보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방산업체 대표단 안보현장 견학

서해 최북단의 전략 요충지 백령도 다녀와...

한국 방위산업진흥회와 국가정보원 공동 주관으로 방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안보 현장 견학이 지난 9월 12~13일 1박2일 일정으로 백령도에서 있었다.

이수익 방진회 상근부회장, 방호철 삼우금속사장, 최창선 엠텍 사장 등 총 19개 업체 35명이 참가한 이번 견학은 방산업체 소속 임직원의 안보의식 고취 및

사기진작으로 국방관련분야 업무수행에 있어 사명감을 부여하고자 실시되었다.

백령도는 면적 45.6km², 해안선 길이 56.75km, 인구 6천6백여명으로 장산곶 남쪽 38선 바로 아래 위치하며, 인천에서 북서쪽으로 191.4km 떨어져 있는 서해 최북단 섬으로 남한 본토보다 북한 내륙에 더 가까운 전략 요충지이다.



▲ 참가자들은 해병 제6여단을 방문해 최근 서해 교전과 백령도 인근의 안보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 백령도 북단의 OP에 올라 남·북간 서해 대치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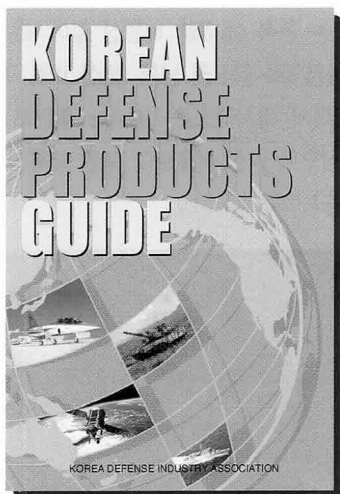
▲ 백령도는 북한 장연과 직선거리 10km, 장산곶과 16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육안으로도 선명히 바라볼 수 있다.



▲ 저녁시간엔 최근 귀순한 귀순자로 부터 북한의 생활상에 대한 생생한 체험을 전해 듣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방산물자 홍보용 카달로그 발간

영문판, 스페인어판 2종류로...



한국 방위산업진흥회는 국내 방산물자의 효과적인 해외홍보를 통한 수출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00년 7월에 발간된 「방산물자

홍보용 카달로그」를 전면 개정하여, 영어판과 스페인어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금번에 발간한 카달로그는 최근 개발된 우리 국산장비를 포함하여 총 64개 회원사의 281개 품목이 수록되었으며, 지면 편성도 전문 디자이너가 체계적으로 편집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하였다.

특히 새로 발간된 방산물자 홍보용 카달로그는 효과적인 대외 수출마케팅을 고려하여 영어판외에 스페인어판을 처녀발행함으로써 우리의 주요 수출지역인 중남미 국가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신규 발간된 카달로그는 해외 주재 국방 및 군수무관을 비롯해 외국의 정부, 주요 기관에 배포되어 한국의 방산제품을 홍보하여 수출증대 및 해외 방산협력 활동에 크게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된다.